

'삶, 그후' 내년 1월 16일까지



(좌로부터) 불교중앙박물관 지장보살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는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상, 목조지장보살상, 무량사 금동관음보살상

불교중앙博 지장보살 특별전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지장보살 기화특별전 '삶, 그후'를 연다. 특별전은 11월 23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16일까지 계속된다. 보물 제279호 선운사 성보박물관 소장 금동지장보살좌상 등 보물 6점 등 76건 85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제1부는 '명부세계, 죽은 자들을 심판하다'를 주제로 육도윤회를 거듭하는 죽음의 세계를 시공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옥관을 통해 보여주도록 했다. 시왕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지은 죄를 죽은 후 최초의 7일에서 일곱 번째 7일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 죽은 지 100일째, 1년째, 3년째 되는 날, 10년에 거쳐 심판해 죄를 씻도록 하고 마지막에 육도윤회를 결정하

는 심판자이다.

전시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받는 3년간 10번의 재판, 그 곳을 관장하는 시왕들, 심판 이후 받는 각각의 지옥들을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관람객들이 불교의 사후세계를 이해하고, 지옥에 대한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기림사·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한 시왕도와 동국대 박물관 소장 금동대왕상,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열경대 등 26건 26점이 전시된다.

제2부는 지장보살과 지장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전시관으로 '지옥중생 모두 성불할 때까지'를 주제로 마련됐다. 관문사 성보박물관 소장 보물 제966

호 <지장보살본원경>, 동국대 박물관 소장 목조지장보살반가상 등 지장보살과 관련된 말씀을 담은 경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장보살의 모습, 지장보살과 여러 권속들을 관련된 유물 14건 14점을 전시해 지장보살의 의미와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3부는 '죽음, 남은 자들의 이별의식'을 주제로 개인소장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등 천도의식과 관련한 의식집과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감로왕 여래도 등 유물 18건 18점이 전시된다. 특히 재의식을 재현해 관람객이 좀 더 쉽게 재회의 장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4부는 '지옥에서 극락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전시는 지장보살이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보살이라는 데 천착해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매곡동담 출토 금동 아미타삼존상 및 불감,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반야용선도 등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이 결합된 유물 18건 27점을 전시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불교의 죽음관은 죽음이 생의 끝이 아닌 다른 생으로의 준비기간으로 인식하는데 있다"며 "지장보살을 주제로 불교의 사후세계관과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쉽게 소개하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종섭 기자

올해가 가기 전 꼭 읽어야 할 '베스트 10'



<불교미술훈의 해학>(권중서·불광출판사)이 제7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 가장 우수한 불서로 선정됐다.

11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효탄)는 불교출판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권의 도서를 '올해의 불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불교미술훈의 해학>이 수상했고, <그대가 보는 책은 그대 자신에 묻어있다>(고미숙·푸른사상)와 <애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까>(박근표, 박선영·자음과모음)는 우수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새롭게 '특별상'을 신설했는데, 특별상에는 <역주 조선불교통사>(법산, 효탄, 김진무, 한상길, 김치은 외·동국대 출판부)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대상에 선정된 <불교미술훈의 해학>은 사찰을 방문하면서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미술작품 속에 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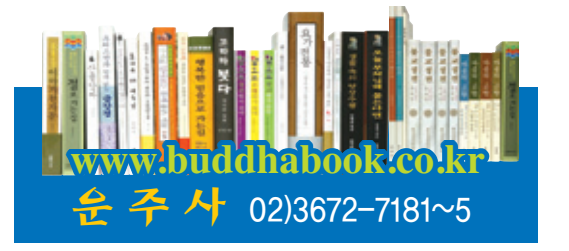
상징적 의미가 숨어 있음을 일깨워준다. 특히 해학적 요소를 소개하면서 불교 대중화를 위한 공헌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대가 보는 책은...>은 불교의 중관 사상이나 선사상을 받아들여, 대립적 여성주의 담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교적 인식론을 보여준다. <애 석가모니는...>은 사리불과 제바달라의 재판이라는 형식과 가상의 역사법정이라는 장 속에서 진행되는 변론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쉽게 전달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도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소설 무수유	정찬주	열림원
4	법정 스님 선묵	법정	다래헌
5	행복한 출근길	법륜	김영사
6	굿바이 티베트	M. 블루먼크론	허안연꽃
7	번뇌 리스트	코이케 류노스케	불광출판사
8	정간담 강이 어디 있더라	대행	한마음선원
9	불교성지순례(인도 네팔)	대연	이스트위드
10	초기불교이해	각목	초기불교연구원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윤남진 리뷰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만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첫 만남에서 필자의 근황과 더불어 디지털 환경의 격변에 대한 필자의 이해와 그런 변화에 교계가 능동적으로 적응해가기 위해 어떤 발상과 행동이 필요한 것인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의 전략>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설명한 바 있다. 이 정도에서 필자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보는 것도 독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 생각된다.

문제의식과 출발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간추려 보면 디지털혁명, 집단지성, 지식생태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일반적 예상치를 뛰어 넘었고,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PC는 이제 막 출시되었으니 아직도 디지털 혁명은 계속 중이다.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이 융합하는 미디어의 탄생은 알고 있다. 서점에서는 애플, 스티브잡스,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 같은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급기야 <아이패드 쇼크>라는 제목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두르면 안 된다. 특히 스스로

초보라고 생각되는 조직이나 사람일수록 행동은 빨리 적응하려 움직이지도 생각은 틈을 많이 들어야 한다. 다시 출발의 키워드로 돌아가 보자. 집단지성. 그렇다. '다수가 참여해 서로 협력,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발휘되는 새로운 지적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집단지성의 특성은 개방성, 수평성, 공유성이라고 한다. 필

자는 집단지성이 발휘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용이성과 신뢰성을 추가로 들었다. 이 용이하기 쉬운-이용자가 필요한 것은 대강 알아서 해주는-방식의 서비스이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종교)적으로 당파적이거나 편협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신뢰성을 우선해야 하며, 상업성이 눈에 거슬릴 정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운영규칙이 중요하고 도구(툴)가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생태계라는 것. 특정한 지식 분야가 특정한 집합을 형성하게 되어 독립적인 순환구조가 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하

는 수준까지 발전,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지식의 집적과 유통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해두어도 무방하겠다. 이 정도가 우리가 출발한 발상지점일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디지털-모바일 혁명에

가 된 것 같다. 이제 '플랫폼'이란 개념으로 들어가 보자. '플랫폼'이란 '다양한 용도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유품형의 구조물'을 뜻한다. 쉽게 기차의 승하차지역인 철도플랫폼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작업을 하거나 대상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구조물'로서의 플랫폼 개념이다. 그 외에 상품거래나 응용프로그램을

(platform thinking)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교계의 좁은 틀과 사고를 벗어나서, 적어도 '불교적인'이라는 범주를 스스로 넘어서서 '종교적인'이라는 수준으로, 더 나아가서 '창의발상'을 고양하는 종교적(심적) 훈련시스템이라는 '미래'사회적 수준'으로 사고를 확장해 보자.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공통된 논리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입각하여 가능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공통된 논리와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다. 필자의 학습이나 연재하고 있는 '리뷰'는 이처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한 어떤 독특한 플랫폼을 구상하기 위하여 사고를 구조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의 맥락(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는 독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자. 이제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과거 종교의 독무대였던 '죽음'의 세계, 거꾸로 생각하자면 '삶의 의미'의 세계로 여행할 때가 되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윤남진

'플랫폼의 사고'가 필요하다



개발 또는 판매하는 인프라로서의 플랫폼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운영체제(OS), 앱 스토어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구조라는 의미의 플랫폼이 있다.[이상 위키백과 참조]

이처럼 플랫폼은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야 하는 다용종 소량생산에 유용한 시스템으로 출발해서, IT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영역의 플랫폼 구축이 용이해지면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필자가 플랫폼 이야기를 꺼낸 것은 플랫폼 사고



이재복 지음 (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뻐뻐,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젓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척추 복부 근육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뱃살과 전정,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욕, 자궁근증,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인을 복부적취를 기장침과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매점운동법!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